충장공 권율 도원수, 418주년 행주대첩제

고양시 행주산성 일대에서 문화행사도 함께

▲ 충장사의 대첩기념제에서 초헌관이 부복한 가운데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임진왜란 중이던 선조 26년, 1593년 2월 12일, 충장공忠莊公 권율權慄(추밀공파 문충공양촌계 시조후 22세) 도원수都元帥가 경기 고양의 한강변 덕양산 행주산성幸州山城에서 2천여의 적은 병력으로 그 10여배나 되는 정예 왜군단과 싸워 대첩大捷을 거둔 날을 당시의 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 14일이 된다. 그래서 매년 3월 14일이 행주대첩을 기념하는 제전의 정일定日이 되었다. 이날의 행사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의 행주산성 일원에서 거행되었다. 행사는 아침 9시 30분부터 산성문 광장에서 벌이는 문화제 성격의 민속놀이 시연을 시작으로 500여 관중이 참관하는 가운데 비롯되었다. 예년에 비해 참여 관중이 현격히 줄었는데 그 수효가 3분의1 수준이었다.

10시부터 산성 경내의 충장사忠莊祠에서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문화원과 충장사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첩기념제의 본행사가 이루어졌다. 초헌관初獻官은 최성崔星 고양시장이, 아헌관은 김필례金畢禮 고양시의회 의장, 종헌관은 한학수韓鶴洙 고양문화원장이 분정되고 이충구李忠九 제전위원장이 감제監祭를 하였다. 그밖의 집사자는 제전위원들이 분정分定되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집례執禮 : 정대채鄭大采
해설집례 : 이정례李貞禮
대축大祝 : 박영경朴永慶
상례相禮 : 김광주金光柱
진설陳設 : 김영호金榮鎬
봉향奉香 : 강홍강姜弘岡
봉로奉爐 : 선운영宣橒永
봉작奉爵 : 이세원李世遠
전작奠爵 : 선호술宣鎬述
내봉작 : 이현재李顯梓
외봉작 : 권정택權貞澤
사준司 : 최의공崔毅功
관세 洗 : 최옥란崔玉蘭 · 김수옥金壽玉 · 김남숙金南淑 · 권은숙權銀淑 · 송임宋任
안내 : 김충신金忠信 · 신우근辛宇根

문화 행사로서의 민속놀이 시연에는 취타대吹打隊가 대첩문 앞 광장에서 공연하는 것을 필두로 대첩문에서 충장사까지 내객을 안내하는 의식이 행해지고, ‘ 고양들소리보존회 ’의 민속놀이 시연이 뒤이었다. 한편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하는 ‘ 행주산성 역사기행 ’이 진행되었으며 육군 ‘ 권율부대 ’에서는 장병이 출동하여 대첩 당시의 ‘ 병졸복 시연 ’ 등을 벌여 관람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행주대첩은 임란중 권율 도원수가 이끄는 관군과 의병、승병僧兵에 행주치마를 입은 부녀자까지 동원, 혼연일체가 되어 2천300여 병력으로 3만여의 정예 왜군을 대파한 임란 3대첩의 하나이다. 당시 부녀자가 앞치마를 짧게 만들어 치고 거기에 돌을 담아 날랐다고 해서 ‘ 행주치마 ’라는 말이 유래된, 우리 민족의 대표적 위기 극복의 전형이다. 행주幸州는 원래 행주杏洲로 표기한 것이 먼저임을, 1830년대 헌종조憲宗朝에 사액한 행주서원의 현판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곳 산이름이 실은 덕양산德陽山이지만 그 산성을 ‘ 덕양산성 ’이라 아니하고 ‘ 행주산성 ’이라 하는 것이나, 여기에 있던 나루를 ‘ 덕양나루 ’라 아니하고 ‘ 행주나루 ’라 한 것 등이 다 그런 연유이다. 그러나 근자에 고양시가 분구를 하면서는 이 구역을 ‘ 덕양구 ’로 명명하여 그 고유의 산이름을 살리고 있다.

▲ 행례를 마친 헌관 · 집사자들이 충장사 신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장공 권율 도원수의 행주대첩제는 충무공 이순신의 아산 현충사 제례와 더불어 엄연히 국가 차원의 행사로 치러져야 마땅함에도 고양시의 행사로 격하되고 있는 데 대해, 습의習儀 과정에서 제전위원들의 분분한 의논이 있었다. 충무공의 현충사 제전과도 우선 품격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비의 지원이 없어 그 규모도 그렇고, 이러다가는 제전위원이 자체 헌성과 모금을 하여 행사비를 충당하는 게 낫겠다는 소리도 나오고, 현충사 제전에 정부의 해당부처 장관이 나가 초헌관이 된다면 충장사에 초헌관으로 최소한 도지사라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론도 있었다.

산성 관리사업소에서는 행사를 위해 주변 경관을 정비하고 충장사 뒤편의 잡목을 제거하여 말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었으며 이날의 관람객에게 산성을 무료로 개방하였다.

<사진 權炳逸 · 글 權貞澤>

충장공 행주대첩비 41년만에 제자리로

산성의 충장사 경내에서 기공사紀功祠로 옮겨

▲ 행주서원 기공사 경내로 환원되고 있는 신대첩비

행주산성이 있는 고양시 덕양산 정상에는 충장공忠莊公 권율權慄 도원수의 전승을 기리는 대첩비가 서 있다. 본디 명칭은 ‘ 행주전승비幸州戰勝碑 ’이고, 선조 35년, 1602년에 공의 막료들이 주선하여 덕양산정德陽山頂에 대첩비를 세운 것이다. 이때 그 비문은 간이簡易 최립崔笠이 짓고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이 음기를 지었으며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이 전액篆額하고 석봉石峯 한호韓濩가 글씨를 썼다. 지금도 이 전승비는 대첩비의 원비로서 구대첩비 등으로 칭하며 그 자리에 보존되고 있다.

이 원비가 오랜 세월에 글자가 마멸되어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1830년 무렵 순조純祖가 서삼릉 행차길에 행주를 지나다가 거기에 사당 하나가 없는 것을 보고 ‘ 왜적을 이긴 것으로는 행주에서 이긴 것이 가장 크다 ’ 하고 사당을 세우라 명하면서 ‘ 기공사紀功祠로 사액賜額하였다. 이러한 순조 32년, 1832년 2월 6일에는 임금이 충장공의 가묘家廟에 승지를 보내 사제賜祭하였고, 다시 헌종 7년, 1841년에 영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이 일을 들어 공의 사당을 세울 것을 아뢰어 기공사가 덕양산 행주나루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건립되었다.

이후 헌종 11년, 1845년 5월에 그 7대손 승문원 학관學官 권진權縝 등이 영의정 조인영趙寅永에게, 덕양산정의 전승비가 마멸되어 읽을 수 없으니 다시 세워줄 것을 요청하여, 동년 8월에 기공사 경내에 새로이 대첩비를 세우고 이를 중건비重建碑라 일컬었다. 이 신대첩비는 전면과 후면에 걸쳐 240여년 전에 건립한 초건비의 전문을 그대로 옮기고, 중건비를 세우게 된 연유를 추기追記로 달아 거기에 명銘을 더하였는데 그 추기와 명을 조인영이 지었다. 그리고 그 글씨는 영의정 이유원李裕元이 썼는데, 이유원은 또한 충장공의 사위 이항복의 후손으로 충장공의 외13대손이 된다.

▲ 덕양산 정상의 구대첩비

경기도 유형문화재 74호인 중건비의 실물은 오석烏石 비신에 바탕과 개석蓋石은 화강암이며, 비문은 음각한 세로 표기로 높이 238cm, 두께 48cm 규모이다. 1970년 행주산성을 성역화하면서 행주서원 기공사에 있던 이 대첩비를 새로 짓는 산성내 충장사로 옮겨가 오늘에 이르고 있었던 바, 이를 행주서원杏洲書院과 지역주민의 소원으로, 기공사의 옛 모습을 되찾는 복원 사업의 차원에서 제자리로 되돌아오도록 하게 되었다. 2011년 3월 21일 시행한 이 중건비의 복원 이전 공사에는 50톤 크레인 등의 중장비가 동원되었다.

▲ 행주산성내 충장사 경내에 있던 신대첩비

<사진 행주서원 · 글 權貞澤>